

세이난(西南)학원 창립 백주년에 즈음한 평화선언

—세이난(西南)학원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의 고백에 근거하여—

세이난(西南)학원은, 창립 백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백년을 전망하며, “세이난(西南)이요 그리스도께 충실하라”라는 창립자 C. K. 도저의 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학교로서 지금까지 학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이난(西南)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평화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한국(조선), 중국 등과 같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책임에 관해서는, 전후의 행보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학정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29-31)고 하였고, 더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고 하셨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의 가치에, 그것이 기독교 교회이든, 가족, 민족, 종교, 나라, 재물이든간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둘로 하나로 만드사,(중략)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엡 2:14-22).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대하는 이질적인 타자에게 조차, 마음을 열고 대면하며, 토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이난(西南)학원은 이와 같은 성서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학교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시하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당시의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천황궁의 ‘어영’(御影)을 ‘하사’해 줄것을 신청하고, 그 후로는 모금활동을 통해 ‘어영’과 교육칙어를 안치한 ‘봉안전’을 건설하고, 식전에 있어서는 ‘궁성요배’(황궁을 향해 고개숙여 절을 함), 기미가요 제창, 교육칙어 ‘봉독’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배속장교의 압력 속에서, 체육교육을 ‘군사교련’의 장이 되게함으로, 학원의 이름으로 학생을 전장터로 보내어,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타국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캠퍼스에 생활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적국인으로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 때도, 그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시하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전후의 행보 속에서도 그와 같은 죄책을 고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천황의 이름으로 행한 침략전쟁에 의해서 상처받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한 ‘가담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민족이나 국경을 넘어서, 전쟁에 의한 부상자나 가족들의 분노, 고통,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창립 백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자국본위의 가치관을 절대화하고, 무력 · 폭력을 행사함으로 사람들의 존엄을 억압하는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세이난(西南)학원에서 배우는 자들과 교직원들이 깨어서 행동함으로,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지금 그러한 뜻을 품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합니다.

2016년 4월 1일

학교법인 세이난(西南)학원